## 편집후기

새로운밀레니엄을맞이하던환호와감동이채가시기도전에벌써한해가지나가버렸습니다. 지난한해의 아쉬움과미련을뒤로한채우리는또다른출발점에서있습니다.
진정한 21세기의출발점인희망찬 200년을맞이하여「건설기술| 쌍용」제18호가알찬내용으로발행된데 대해 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21세기 건설산업은과거노동력 중심에서벗어나기술력을 바탕으로한기술 경쟁체제로탈바꿈할것입니다. 이러한변화에대처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에대한남다른관심과노력이요구되며,「건설기술 | 쌍용」은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커다란 과제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무엇보다여러분들의보다많은관심과격려가필요하며, 여러분곁에묻어두고계신기술을 이공간을통해펼쳐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보내주신정보를정성껏편집하여많은분들이서로공유 할수있는장을마련해드리겠습니다.


**원고접수처 ›››› 건설기술| 쌍용 을함께만드는편집 · 실무위원들**

| | | |
|---|---|---|
| 편집위원장 | 이세웅이사(7094, swlee@mail.ssyenc.co.kr) | |
| 연구개발부 | 김영구과장(7753, ygkim@mail.ssyenc.co.kr) | 서경진대리(7756, joshep@mail.ssyenc.co.kr) |
| | 김도군대리(7741, dpbluekim@mail.ssyenc.co.kr) | |
| 기 획 부 | 김지현사원(7113, judy@mail.ssyenc.co.kr) | 김 한사원(7148, trascend@mail.ssyenc.co.kr) |
| 건축기술부 | 심종욱과장(7711, shimju@mail.ssyenc.co.kr) | 조운성대리(7731, wscho@mail.ssyenc.co.kr) |
| 토목기술부 | 이기환과장(7772, ikhjin@mail.ssyenc.co.kr) | 양성호대리(7776, yang1222@mail.ssyenc.co.kr) |
| 플 랜 트 | 임성계차장(7802, sungkye@mail.ssyenc.co.kr) | 조상민사원(7819, harmonic@mail.ssyenc.co.kr) |

●「건설기술|쌍용」은매분기마지막달(3, 6, 9, 12월) 1일에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발간되며, 발간일2개월전까지 의견을주시면편집에반영됩니다.

# 건설기술|쌍용

2001년 봄
통권 제18호(비매품)

발 행 인 김석준
편집/실무위원 편집위원장:이세웅
편집위원:김영구, 심종욱, 이기환, 임성계
실무위원:김도군, 김지현, 김 한, 서경진, 양성호, 조상민, 조운성
발 행 일 2001.3.2
발 행 처 쌍용건설주식회사서울시송파구신천동7-23(TEL:3433-7756, 7741)
e-mail:dpbluekim@mail.ssyenc.co.kr
joshep@mail.ssyenc.co.kr
제 작 처 (주)대통기획(TEL:2269-3613)



**㈜이책의내용에대한저작권은쌍용건설 · 남광토건이가지고있으며, 본지의기사나사진등을무단으로전재, 또는발췌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구름덮인청색보석지구. 지구의진화에서대기형성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대기는지구를둘러사고있는기체층으로생명체의생존을가능케 하는가스의집합체이기때문이다. 》대기는우주로부터지상의생물을지켜주고생물이살아갈수있는조건을제공해준다. 우주로부터끊임없이쏟아 지는자외선 · 적외선 · 유성등이대기에서산화되거나걸러진다. 》대기는또적도의열을고위도로이동시켜지구의평균기온을 15℃ 내외로유지해 준다. 》대기권은온도분포의특징에따라4개의층, 열권 · 중간권 · 성층권 · 대류권으로나뉜다. 》지표로부터 14.5㎞안팎에있는대류권에서의강 우는대기오염물질을정화하는역할을한다. 그러나대기오염이심해지면대류권의정화기능과태양열반사기능도떨어져지구온난화가진행된다. 》성층권은대류권상부로부터약 50㎞까지를말한다. 》성층권즉지표로부터 20 ~ 25㎞에있는것이오존층이다. 새물의세포분자를파괴하는해은 파장의자외선이대류권으로내려가지못하도록자외선을흡수하는오존층에서는대류현상이거의없고구름또한만들어지지않는다. 》그러나화산이 나폭풍등에의해서생긴, 혹은프레온가스같은대기오염물질은수년이상성층권내에남아오존층을파괴한다. 》대기오염에의한온실효과로빙하가 녹고바다가팽창하고있다. 》도대체내일, 지구에는어떤일들이벌어질것인가?

**생각해봅시다 _** 페루의 로보스데티에라 섬에서는바다갈매기들이주기적으로집단자살을했다. 뜨거워진바닷물이 흘러들어와 플랑크톤이 죽자그곳에살수없게된물고기들이다른곳으로떠났다. 갈매기들도먹고살수없었기때문이다. 그래도살고자하는바다갈매기들은지 금내륙까지찾아들어와쓰레기매립장을뒤지고다닌다.